



[가상화폐]
막차 탄 코인투자자
4분의 1 토막
당국·은행 '나몰라라'
03



코스피 2453.31 (-38.44)	코스닥 858.17 (-0.05)
금리 (국고채 3년) 2.25 (-0.03)	환율 (원·달러) 1091.50 (+3.00) (6일)



16년 만에 남북 육해공로 모두 열렸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릉과 서울에서 공연할 북한 예술단 본진을 태운 만경봉 92호가 6일 오후 강원도 동해시 목항에 입항하고 있다. 북한 예술단 방남에 반대하는 태극기 시위대가 태극기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본시장대통령’ 7개월째 공석 (기금운용본부장)

618조 국민 노후자금 불안하다

현임원도 반 이상 임기종료
기금운용 의사결정 공백 우려
외압 논란에 지원자 없는 듯

600조원이 넘는 국민 노후자금을 굴리며 ‘자본시장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이 자리가 7개월째 공석이다. 국민들의 노후 자금은 안전한 것일까. 투자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지난해 7월 강면욱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중도 사퇴하고 이달로 약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공단 측은 기금이사추천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금운용본부장은 기금이사추천 위 구성 이후 공모-심사-추천 등을 거쳐 국민연금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에 더해 엎친데 덮친격으로 현재 공단 현직 임원 중 반 이상이 임기가 종료되는 등 기금운용 의사결정 공백도 우려된다. 기금운용본부장의 공석이 장기화된 가운데 공단 임원까지 자리를 비우면서 일부 기금운용 수익률 하락에 따른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기금 적립금은 약 618조원에 달한다. 지난 1988년 국민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지 올해로 30년 만에 이룬 성과다. 일본 공적연금(GPIF), 노르웨이 글로벌 펀드연금(GPFG)에 이은 세계 3대 연기금으로 평가된다. 당장 4년 뒤에는 적립금이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운용본부장, 204일째 공석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라는 막대한 기금을 운용하는 종대한 자리지만 이날로 204일째 공석인 상황이다. 지난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이다. 강 전 기금운용본부장 외 다수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하차한 경우는 많았지만 이처럼 오래 자리를 비워두진 않았다. 길어야 2개월 안팎이었다.

시장에선 지난해 11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취임 이후 기금운용본부장 역시 단시일 내 인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최근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연금 불신, 정부 및 정치권의 입김, 운용 수익률 하락 시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쉽사리 기금운용본부장 자리에 앉으려는 인재를 찾기 힘들다는 분석이나온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권한과 책임이 막중한 자리”라며 “다만 역대 기금운용본부장들이 외압 논란에 시달리는 등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쫓겨난 ‘학습효과’ 때문에 지원자가 딱히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장 자리에 아무리 뛰어난 해외 인재를 데려온다고 해도 현재 한국 현실에선 제대로된 임무를 수행하

면서 ‘연금 사회주의’가 강화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국민연기금 운용 관련 참견과 간섭이 극에 달할 것이란 설명이다. 기금운용본부장 자리에 선뜻 나서는 이가 없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다만 “정부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기업을 통제한다는 것은 기우”라며 “이는 있을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공단 측은 현재 기금운용본부장을 뽑을 계획은 없다고 한다. 김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장 선임에 앞서 기금운용 관련 시스템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600조원이 넘는 국민 자금을 운용하는 자리이니 만큼 도덕성 검증 등 철저한 자격 심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신임 기금운용본부장 선임에는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금운용본부장은 조인식 해외증권실장이 대행하고 있다. 현재 기금운용본부장은 조인식 해외증권실장이 대행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본부장 자리에 아무리 뛰어난 해외 인재를 데려온다고 해도 현재 한국 현실에선 제대로된 임무를 수행하

기 힘들다”며 “기금 운용과 관련 시스템 개편 작업의 기본적 방향과 틀을 잡은 다음에 기금운용본부장을 인선하는 등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인재를 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공단 임원 70% 임기 만료

공단에 재직 중인 임원은 현재 김성주 이사장을 포함해 총 10명이다. 이 가운데 김 이사장과 김 육동 비상임이사, 장재혁 비상임 이사 등을 제외한 7명의 임원은 모두 임기가 만료됐다. 공공기관 운영 법률에 따라 후임자 임명 전까진 전임자가 직무를 대신 수행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극적인 행동으로 국민연기금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민연금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나 상임이사추천위원회 등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나 이사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임명한다. 임주위 후 정식 임원이 되기까진 통상 최소 3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국민연금이 정상화되기 까진 3개월 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즉 빨라도 5월 초에나 기금운용본부장과 임원이 선임될 것이다.

적어도 6월 지방선거 전에는 채워지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봉준 기자 b35sea@metroseoul.co.kr

JY 경영 복귀시점 촉각

‘석방’ 이재용 삼성 부회장
공식 일정 없이 휴식 취해



지난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뉴스

6일 삼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전날 부친인 이건희 삼성 회장을 보기 위해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 병원을 방문한 뒤 이날 공식 일정은 없었다.

이날 오전 9시반경 서울 한남동 자택을 나서는 것이 포착됐지만, 서초동 사무실을 찾을 것이라는揣測과 달리 공식 없이 개인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오늘 오전 9시 30분께 자택에서 나온 것으로 알지만 이후 일정이나 행선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 시기 명확히 밝히지 않지만 복귀 시점이 늦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 1년여 간의 총수 부재로 삼성 대내외적인 행사는 물론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부재로 미뤄져 왔던 굵직한 경영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영 복귀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을 기소한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이 2심 선고 후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히면서 대

특히 이번 투자 최종 결정은 이 부회장 석방 이후 첫 번째 대규모 투자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에 2공장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기초 과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을 기소한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이 2심 선고 후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히면서 대

법원 상고심이 남아있는 데다, 집행유예 석방에 대한 비난여론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경영복귀 시점을 신중히 조율해 결정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경기도 평택 반도체 단지에 제 2생산라인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자 규모는 최대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르면 이번주 이사회 산하 경영위원회를 열고 평택 반도체 2공장 투자를 확정지를 계획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투자 최종 결정은 이 부회장 석방 이후 첫 번째 대규모 투자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에 2공장 투자를 결정하는 것은 기초 과정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을 기소한 특별검사팀과 삼성 측이 2심 선고 후 모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히면서 대

법원 상고심이 남아있는 데다, 집행유예 석방에 대한 비난여론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경영복귀 시점을 신중히 조율해 결정내릴 것으로 관측된다.

美 악재에 코스피 휘청

미국의 금리인상 걱정에 세계 경제가 또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가 성장동력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블랙 스완’(발생 가능성성이 거의 없지만 한 번 일어나면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증하면서 여파가 우려된다.

당장 6일 국내외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지며 ‘미국 발 검은 화요일(Black Tuesday)’를 연출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54% (38.44포인트) 하락한 2,453.31에 마감했다. 이날 국내 증시에서는 하루 만에 25조 원(시흘간 75조)이 넘는 시가총액이 증발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닛케이225 지수가 4.73% 폭락했고, 홍콩 항셍지수와 대만 가권 지수도 일제히 급락했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난해 7월에 하락했던 저점인 2350이 1차 지지선이 되고 거기서 못 막으면 2차는 2250~2300선이 될 것”이라며 “이는 지난 7년간 박스권의 상단에 해당한

미국의 금리인상 걱정에 세계 경제가 또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가 성장동력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블랙 스완’(발생 가능성성이 거의 없지만 한 번 일어나면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증하면서 여파가 우려된다.

당장 6일 국내외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지며 ‘미국 발 검은 화요일(Black Tuesday)’를 연출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54% (38.44포인트) 하락한 2,453.31에 마감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54% (38.44포인트) 하락한 2,453.31에 마감했다.